하루를 시작하며

서점에도 노키즈존이 있나요?

권 희 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가끔 전화나 메시지로 "거기 노키즈존인가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디어 마이 블루가 노키즈존이라면 아마 세계 최초로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서점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이 질문을 하는 부모들이 제주라는 곳에 대해서, 어떤 관광지의 공간이라는 곳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당한 선입견이 서점으로까지 향한다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씁쓸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사실 서점을 열면서 200종이라는 한정된 수의 책만 들이겠다는 나의 원칙과 이곳이 책을 사서 읽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겹쳐져 아이들 책을 많이 두지는 않았다. 비율로 따지자면 약 10% 정도? 것도 책의 종수를 한정하다 보니 아주 다양하게 구비할 수도 없어서 각 연령대별로 기껏해야 한두 권씩 들여놓았을 뿐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놓고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웰컴키즈존도 아니었던 셈인데, 내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에 여행을 온다면 이 자연 속에서 애들이 뛰어놀며 즐기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굳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다가 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나 싶었다. 도민들이야 정말 어린이 책 전문가가 운영하는 좋은 어린이책 전문서점도 있고, 지역별로 도서관들도 꽤 잘 되어 있는 편이니 우리 서점이 어린이책을 많이 들여놓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였다.

이런 생각이 판단 미스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서점 오픈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였다. 오픈 날을 제외하고는 서점의 첫 어린이 손님이었던 10살 명준이와 9살 연진이는 남매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엄마 둘이서 각각의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을 맞아 제주에 한달살이를 온 거였는데, 2주차 정도가 되니 애들이 맨날 밖에서 노는 것도 지겨워해서 서점을 찾아 나선 길이라고 했다. 엄마들은 애들에게 읽힐 만한 책이 별로 없는 와중에도 어찌저찌 책을 골라갔고, 여기서 산 책은 언제든 다시 와서 읽어도 되고 야외 공간에서 읽고 싶으면 방석과 피크닉 매트를 빌려주고 텐트도 쳐준다는 말에 바로 다음 주에 도시락을 싸들고 정말로 다시 책을 읽으러 왔다.

그들은 건물 사이의 작은 잔디밭에 텐트를 쳐주고 피크닉매트를 빌려주자 서너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다. 아이들이 텐트를 들락거리며 책을 보다 잔디를 뛰놀다 낮잠도 자다 할 시간에 엄마들은 자신들이 고른 책을 다 읽고 새 책을 골라 갔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두 번씩 요일을 정해 간단한 도시락을 싸들고 피크닉을 왔다. 당연히 우리 서점에서 산 책을 가지고 말이다. 이건 정말이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서점에서도 아이들 책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애들 책은 잘 모르는 분야라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서점 특성상 비율을 많이 늘리지는 못해서 일정 비율 안에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디어 마이 블루는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책을 고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마을 서점으로 일조할 테니, 언제든 애들 데리고 부담 없이 오시면 좋겠다.

사설

새삼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은 남다른 달입니다. 유독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달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한 카페에서 가족의 의미를 빗대서 재밌게 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가족을 '박카스'에 비유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가족을 보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정에서 존속범죄 등 극단적인 사건이 잇따라 가족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존속범죄는 2016년 58건, 2017년 53건, 2018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154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87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 39건(25.3%), 존속협박 15건(9.7%) 등의 순입니다. 존속살해·상해치사도 3건이나 됩니다.

또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도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6년 74건, 2017년 99건, 2018년 96건 등 최근 3년간 269건에 달합니다. 장소별로 분석하면 161건(59.8%)이 가정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10건중 6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역시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노인학대 건수를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2015년 125건이던 신고건수가 2016년 152건, 2017년 208건에 이어 지난해는 60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 뿐입니다. 다른지방의 사례지만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여중생이 의붓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와 다투던 30대 아들이 분신하는 참사도 전해졌습니다. 안락한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이에 못잖은 가정파탄도 심각합니다. 제주지역의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결혼하면 4명 이상이 갈라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의 안정' 없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열린마당

가축분뇨 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박 동 헌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지금부터 40~50년 전인 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를 이용한 '통시(변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시'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화장실인데 현재와 다른 점은 화장실 내부에 돼지가 있어 사람의 배설물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하고 이에 따른 돼지의 분뇨를 이용해 경작지의 거름(퇴비)으로 이용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일부 농가에서 처리가 안 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양돈농가 200개소, 소와 젖소 농가는 371개소, 말 184개소, 닭이나 오리 등은 158개소로 총 913개소의 축산농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과거의 '통시'나 마당에서 기르던 가축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농가들이 상당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35개소의 농장 등이 고발 10건 및 허가취소와 사용중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고발 5건, 과태료 10건 등 1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에 들어가고 있다. 농가 내·외부를 청결히 하여 악취를 줄여나감은 물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청정한 제주의 환경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불화가 없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현실을 모르는데 정책이 나오겠나"

자동차정비업체 대표들 성토

○…자동차전문정비업체 대표들이 7일 도의회가 개최한 '전기차 보급 따른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

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채운 정비업체 대표들은 제주도청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발언에 대해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일침.

한 카센터 대표는 발언기회를 얻은 뒤 "토론자들 말을 들어보니 실상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상생 노력은 좋지만 피해 상황도 모르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겠느냐"고 목청. 표성준기자

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족 해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올해도 추진.

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년층 1인가구 중 고위험군, 저위험군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방문이나 전화안부 확인, 고민 상담, 복지욕구 등을 파악.

협의체 관계자는 "자연스런 안부확인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서비스 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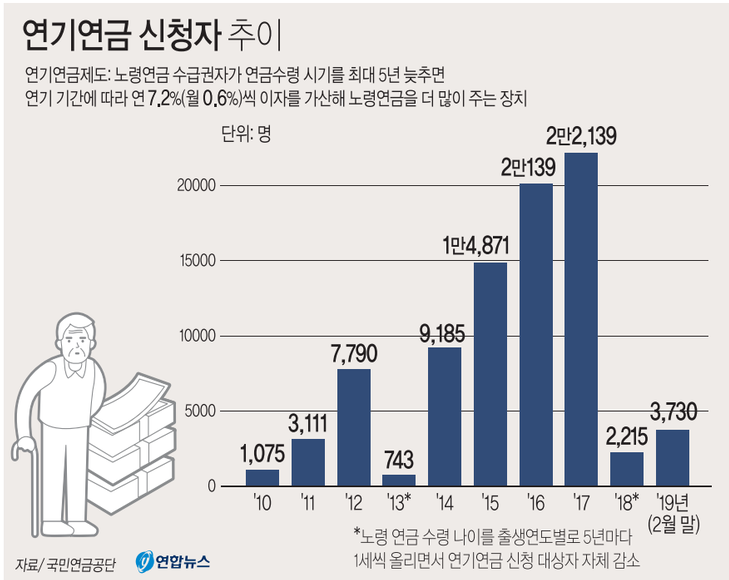
학예연구과장 도외서 4명 응모

○…제주도가 지난 1~3일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을 일반임기제 5급 상당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전국 공모한 결과 총 4명이 응모.

이번 공모는 전임 학예연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응모자는 모두 제주도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

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 개최 등으로 학예인력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제주도에 최소 2명을 추가 배치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학예연구과장까지 임기를 못채우고 공석이 되면서 속앓이. 진선희기자

그래픽 뉴스



부 고

고익수(삼성물산(주) 부장) 어머니 경주김씨 공숙(향년 82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6일 17시 1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9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성산읍 수산리 가족선영

아 들 고익수 며느리 김순희
딸 고미향 사 위 임덕원
영미 진기옥
영심 전백건
영희 정대현
수연 정광호
미정 소성진
미옥 박승일

※연락처 : 고익수 010-6362-2860
진기옥 010-3639-1617

부 고

장경호(삼성법인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순옥(향년 95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7일 04시 3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8일(수)
▶발인일시: 2019년 5월 9일(목)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용강 가족묘지

아 들 장경호 며느리 송영란
딸 장정자
여봉 사 위 윤진호
옥봉 박흥일
손 자 장은철 외손녀 고현주
주영 현아
손 녀 장은솔 현정
외손자 고효승 윤지현
윤상필 박민영
박종연

※연락처 : 장경호 010-3708-3013
장정자 010-9809-1783
윤진호 010-6524-9298
박흥일 010-3690-0625

부 고

김시형(前 국민은행 제주지역본부장) 아버지 광산김공 우식(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6일 10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8일(수)
▶발인일시: 2019년 5월 9일(목) 오전 8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시형
며 느 리 김영옥
딸 김순정
정희

※연락처 : 김시형 010-2442-9005
김영옥 010-5778-6848
김순정 010-6691-9660
김정희 010-2699-3252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원, 10명모집)
지역 : 베트남(다낭, 꽝남)
사업명 :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만감류)
동남아시아수출 (96만평)
기상, 토양, 최적지(고소득 창출)
상담문의 010-9292-6933 봉개동 황금농원 010-2699-5572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독립적인 호텔식 분향실 및 접객실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대중교통 270번, 793-1번 이용가능
<애월읍 순환버스 .일반간선버스 운행중>
노형에서 10분 거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노형방향 1.5km지점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도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